

하와이 빅아일랜드로 떠나다

지난 가을 늦은 휴가를 가기로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던 차에 아내가 하와이를 가자고 제안하였다. 최근 하와이는 오아후와 이키키 해변이 신혼여행지로 너무 많이 알려진 터라 그리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술자리에서 지인이 하와이에 여러 섬 중 빅아일랜드(하와이 섬)라는 곳이 산과 바다, 용암까지 볼 수 있어 아주 멋지다고 하여 부랴부랴 일정을 잡고 휴가를 하와이 빅아일랜드로 정하게 되었다.

8박 10일 일정은 빅아일랜드에서 해수욕 및 스노클링, 만타레이 보기, 마우케니아 산 정상에서 별 보기, 볼케이노 국립공원 관람, 라바 투어였다. 우리는 하와이안항공을 타고 오아후 호놀룰루를 경유한 뒤 빅아일랜드 코나에 처음 발을 디뎠다. 빅아일랜드는 대중교통이 거의 전무하기에 대부분의 관광객이 차를 렌트하여 이동한다. 차량 렌트비는 때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 같다.

코나

코나는 2가지가 유명한데 첫 번째가 코나커피이다. 해발 4,500m 코나 지역에서 재배되는 세계 3대 커피 중 하나로 커피 재배에 최적의 토양인 화산 토지대에서 자라는 커피인 만큼 최고의 맛과 향기를 자랑한다. 코나에서는 식사 후 코나 커피를 종종 마셨는데 3달러 정도 저렴한 가격에 신맛이 강하고 진한 향기가 입안에 맴돌았다. 두 번째는 석양이다. 코나는 지리적으로 빅아일랜드 서쪽으로



아름다운 해변이 많다. 야자수 사이 바다로 떨어지는 석양은 감탄을 자아낸다. 우리는 코나에 3일 머무는 동안 매일 멋진 일몰을 바라보면 맥주를 마셨다.

만타레이 스노클링

코나에서 해 봐야 할 것 중의 하나는 만타레이 스노클링으로, 만타레이는 크기가 3~6m에 달하는 대형가오리이다. 이 투어 가격은 1인 100\$이고 저녁에 하는 액티비티이다. 야간에 인원 10명 정도 그룹을 정해 한배를 타고 10분 정도 나가면 길쭉한 LED 등이 있는 부표를 설치하는데 우리는 스노클장비를 하고 그 LED 등이 달린 부표를 잡고 물에 떠 있으면 바로 앞에 여러 마리의 만타레이가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만타레이는 불빛을 좋아하고 직원들이 먹이를 뿌리기 때문에 사람에게 근접해서 다가온다고 하였다. 정말 손에 닿을 정도로 가까이 접근하기 때문에 그 투어 담당자들은 만타레이를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한다. 정말 바로 코앞으로 대형 만타레이가 지나가는 모습은 놀라우면서도 경이로워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 투어시간은 약 1시간 정도이며, 만타레이 스노클링은 코나 여행 시 꼭 강추하는 투어이다.



스노클링 및 주요 해변

우리는 코나에서 스노클링하기 괜찮다는 두 곳을 다녀왔다. 호나우나우 비치(일명 투스텝)와 카일루아 비치였다. 호나우나우 비치(투스텝)는 두 발자국만 가면 바닷속에 풍덩 들어갈 수 있다 하여 투스텝이라 지어졌다고 한다. 이곳은 파도가 너무 세서 바위에 부딪힐 위험이 있고 조금만 들어가도 수심이 깊었다. 카일루아 비치는 초보들이 스노클링하기 괜찮을 만큼 충분히 수심이 얕았지만 바닷속은 탁한 느낌이었고 전반적인 풍경은 그리 좋지 않았다. 스노클링하기 가장 좋았던 곳은 동쪽 힐로지역에 갔을 때 카포호 타이드 풀스라는 곳이다. 파도도 잔잔하고 다양한 바닷속 물고기, 산호들의 보존상태 등 아름다운 바다의 모습을 갖춘 곳이었다. 그리고 힐로 근처에 있는 칼 스미스 비치는 주위가 공원처럼 잘 정리되어 있고 거북이가 많기로 유명하다. 방문했을 때는 거북이를 몇 마리 보지 못했지만 그 지역 주민 중에는 이름을 단 애완거북이가 그곳에 있다고 할 정도로 거북이가 많다고 한다. 우리는 스노클링 장비를 한국에서 준비해 갔지만 현지 월마트에서 싼 가격으로 판매하니 굳이 한국에서 사서 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코나에서 약 30분 정도 북쪽으로 가면 마니니오 왈리 비치가 있는데 빅아일랜드 서쪽에 가장 예쁜 해변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해변 규모는 상당히 작지만 물 색깔이 푸르기 때문에 너무 아름답다. 파도가 많이 치기 때문에 스노클링은 적합하지가 않았고 해수욕을 즐기거나 부기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많았다.

마우나케아 산

아내는 마우나케아에서 보는 별을 가장 기대했다. 코나에서 출발하면 마우나케아 비지터 센터까지 2시간 반 정도 걸린다. 비지터 센터에 도착하면 그 이후로는 4륜 차량만이 마우나케아 정상까지 이동 가능한데, 우리 차량은 2륜이었고 직원에게 사정해보았지만 2륜 차량은 절대 올라갈 수 없다고 한다. 비지터 센터에 도착하니 코나와 달리 기온이 급격히 낮았다. 점퍼를 입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추웠다. 하필 그날따라 달이 밝아 비지터 센터에서도 하늘의 별을 잘 관찰할 수 없었고 천체망원경으로 별을 볼 수 있는 요일이 아니었기에 아쉬움이 남았다. 하지만 해발 2800m의 비지터 근처 언덕에 오르니 우리 발아래 쪽으로 구름이 짙아 깔려 장관을 이루었다. 비지터 센터에서는 뜨거운 물을 무료





호나우나우 비치(투스텝 비치)



카포호 타이드 풀스



칼 스미스



마니니오 왈리 비치

로 제공해 주기 때문에 컵라면을 가져가서 별을 보면서 먹으면 밤 추위를 조금이나마 녹여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우리는 언젠가는 마우나케아에서 다시 별을 보러 오리라 다짐하고 늦은 저녁에 다시 코나로 돌아왔다.

볼케이노 국립공원

우리는 코나를 떠나 볼케이노 국립공원으로 향했다. 볼케이노 국립공원은 화산폭발이 최근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 재거 뮤지엄 앞에서는 분화구에 용암이 끓어오르는 광경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체인 오브 크레이터스 로드는 약 40킬로 정도 길이의 용암이 흘러 굳은 도로인데 마치 다른 행성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감탄을 연발하게 되는 곳이었다. 이곳을 기대하지는 않았지



재거 뮤지엄

체인 오브 크레이터스
로드, 홀레이씨아치

만 하와이 여행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이었다. 그 길 끝에는 훌레이씨아치가 있고 다시 그 길을 따라 볼케이노 국립공원으로 되돌아와야 했다.

다음날은 이키투레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키투레일은 화산분화구 주변을 트레킹하는 것이다. 현재 이 지역은 용암이 분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트레킹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걷다 보면 바닥이 뽕죽한 곳이 많아 등산화로 걷기에 적합하고 햇볕이 짙은 날에는 긴 팔에 선크림과 모자는 필수이다. 무척이나 더운 날씨에 그늘 한 점 없는 곳을 걸으니 나도 아내도 썩 유쾌한 코스는 아니었던 것 같다.



라바 보트투어

이키투레일을 끝내고 우리는 볼케이노 국립공원의 일정을 마치며 동쪽 힐로로 이동하였다. 힐로로 이동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라바 보트투어를 하기 위함이었다. 라바 보트투어는 내가 가장 기대를 많이 하고 온 곳이다. 그래서 그동안 다녔던 코나여행 및 볼케이노 관광, 마우나케아 산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라바투어는 헬기투어랑 보트투어 두 가지가 있다. 라바 헬기투어의 경우 보트투어보다 약간 비싸고 하늘에서 전반적으로 용암을 볼 수는 있지만 가까이서 용암을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라바 보트투어가 더 인기가 많은 편이다. 라바 보트투어의 경우 1인당 거의 250\$에 달하기 때문에 2인 기준 50만원이 넘는 투어였다. 하지만 이 투어를 하기 위해 빅아일랜드에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가격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라바 보트투어의 경우 시간대별로 가격이 조금씩 다르다. 이른 아침이나 오후 늦게 보는 것이 라바(용암)가 뚜렷이 보이기 때문에 20~30\$ 정도 더 비싸다. 우리는 비싼 오후 5시 타임을 한국에서 신청해서 갔다. 왜냐하면 인기 시간 때는 빨리 마감되기 때문이다. 수륙 양용배에 올라타면 그 배가 육지에서 바다로 진수하고 육지 측면을 따라 빠르게 이동한다. 거의 시속 80킬로의 속도로 달리다 보니 엄청난 바운스와 물이 튀었다. 허리가 좋지 않은 사람은 배에 탈 수가 없다고 한다. 40분 정도 이동하다 보면 용암지대에 도착한다. 라바가 바닷속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을 배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다. 용암이 흘러 바다로 떨어지면서 뜨거운 연기를 뿜어내는데 주위로 열기가 가득하다. 직원이 양동으로 물을 떠서 만져보라고 한다. 바닷물이 뜨겁다. 바로 눈앞에서 용암을 볼 수 있다는 게 실감 나지 않았다. 라바 투어는 인생에 있어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여행 투어 중 하나였다고 생각된다.



라바 보트투어 배



하와이 빅아일랜드는 바다와 산, 그리고 용암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하와이 여행이라고 하면 보통 쇼핑, 와이키키 해변에 야자수만 생각하게 되는데 빅아일랜드와 같은 이런 곳도 있다는 것을 알고, 독자 여러분들은 기회가 되면 꼭 여행해보길 권한다. ☺